

대양산단, 부채 2909억 2019년 일괄 상환 결정

목포시의회,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 진통끝 통과

목포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대양일반산업단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이하 동의안)'이<광주일보 11월11일자 2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번 동의안은 목포시 재정의 블랙홀로 불리는 2909억원의 부채를 3차례 분할 상환토록 돼있던 것을 오는 2019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동의안에 대한 심의 결과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 끝에 찬성 12, 반대 8, 기권 2표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22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에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인 12표를 가까스로 넘겨 통과됐다.

한때 이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식(기립으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의회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날 목포시의회 의원도 "채무

부담 행위 연기시점을 현 시장의 임기 이후인 2019년으로 잡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특히 부채협상 대상인 한국투자증권과 협의를 마친 후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오히려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한국투자증권과 협상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2900억 중 현재 2400여억원이 사용된 만큼 나머지 400~500억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지급방식을 현금 지급이 아닌 대양산단 토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양산단 부채상환 방식 전환에 맞서 4일째 단식농성 중인 최홍림 의원은 "일단 동의안 처리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국내 최고 재정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시민 여론 조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목포시의회가 지난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가 제출한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기립여부로 찬반을 결정하고 있다.

반면 정영수 의원과 강찬배 의원은 "고육지책으로 대안이 없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목포시가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도와줘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날 동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시민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강하게 시의원들을 질타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박홍을 시장으로부터 임기 내인 2018년까지 54.4% 분양률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목포시는 이날 시의회가 동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4년 동안 분양률 미달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재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이게 돼 앞으로 해양개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주푸드 활성화, 도내 7개 시·군 공급협약

전주시가 대도시형 먹거리 전략인 '전주푸드 2025 플랜'을 선포한 데 이어 시민 밥상에 오를 일부 농산물을 고창군 등 인근 시·군에서 구매하기 위한 제휴 푸드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와 고창군,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등 도내 7개 시·군 단체장은 30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자립·선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휴푸드 협약식'을 하고 상생노력을 다짐했다. 협약에는 김제완주축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동참했다.

이날 전주시가 시민의 밥상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로 해결하되 공급이 달리는 일부 농축산물은 인근 시·군으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것이다.

전주푸드의 먹거리로 공급될 품종은 ▲고창군 복분자 ▲무주군 천마·머루 ▲부안군 수산물 ▲완주군 유정란·밀반찬 ▲임실군 우유·치즈 ▲장수군 사과·오미자 ▲진안군 홍삼·잡곡류 등이다. /고창=고효석기자 ghs@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는 전주푸드의 홍보와 소비촉진을 물론 지역자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7개 시·군과 농산물 공유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전하고 신뢰 높은 농축산물의 공급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도 이번 협약의 결실로 꼽히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주권 회복'은 시대정신이 됐다"면서 "참여 시·군과 손을 잡고 지역 생산, 지역 소비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도시와 농촌, 시민과 농민이 상생하는 지역 자립형 선순환 경제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는 2025년까지 전주 관내 7000여 농가 가운데 5000여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축산물을 전주 시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 푸드플랜 2025'의 추진을 선언했다. /고창=고효석기자 ghs@

전북도 '스마트 빅 보드' 구축한다

(첨단 재난 분석 시스템)

전북도가 첨단 재난 상황실로 불리는 '스마트 빅보드(Smart Big Board)' 시스템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구축한다.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때 폐쇄회로 CCTV 영상, 기상정보, 인공위성 영상, 재난 이력 등 각종 재난 관련 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지도위에 표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스마트 빅 보드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연말부터 재난 CCTV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시스템은 도내 재해취약지구의 CCTV(109대)의 영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재난 CCTV 정보와 도내 곳곳에 설치한 풍향·풍속계, 지진가속

도계, 수위계의 정보 등 모든 재난관련 정보를 실시간 통합·분석해 전자지도(GIS)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재난·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를 빠르게 파악해 조난 요청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병관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현 시스템으로는 각종 재난정보를 연계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스마트 빅보드가 도입되면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교부세 배정 기준, 인구수 비례에서 복지 대상 비율로 바뀌야

장흥군 "인건비·운영비 늘고 개발예산 줄어 재정 악화"

장흥군 등 자치단체의 산업·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줄어든 반면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는 늘어나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내년 총예산 3150억원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482억원이 인건비로, 매년 중앙정부

의 교부세 지원이 줄어 지방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행정운영경비도 지난해 497억원 보다 5% 늘어난 5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이 일선 자치단체들의 매년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2014년 7월 근로기준

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당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바뀌고 사업인부인 기간제 요원들이 정년(신분)이 보장되는 급여체제가 대폭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부세 지원이 낮아지면서 일선 군단위 지자체들은 지방비(군비) 부담율이 높은 산업·지역개발과 정책성 자체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

2016년도 장흥군의 산업·지역개발 예

산은 올해 380억원 보다 28.6%나 줄어든 270억원으로 건설업계 및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의회 김보희 전문위원은 "현행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지원율을 인구수 비례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에 편중된 제도를 사회복지 대상(기초장애인, 노인) 비율로 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남원 지리산 산악 관광철도 시범 도입

순환도로 34km 구간 설치 추진... 연구 용역 착수

남원시가 국내 최초로 지리산 순환도로 내에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도입에 나선다.

여름철 방문차량 급증에 따른 각종 환경훼손을 막고, 겨울철 도로결빙 등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도로환경을 개선해 지리산을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게 남원시 계획이다.

지난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리산 산악철도는 지리산 순환도로인 남원 주천면 옥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

를 잇는 1구간(지방도 737호선) 18km와 달궁삼거리~성삼재~구례 천은사를 잇는 2구간(지방도 861호선) 16km 등 총 34km 지방도로에 산악철도를 설치해 지리산을 보호하고, 관광산업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1470여종의 국내 최대 자생식물과 아름다운 사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산이지만,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으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개월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남원=정규식기자 jgs@

특히 휴가철인 여름이면 방문 차량 급증으로 소음과 매연·분진 등은 물론 로드킬이 발생하는 등 지리산의 소중한 자원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는 친환경 산악철도가 도입되면 지리산의 환경 보존은 물론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13년 4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산악철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R&D 신규과제 선정을 위해 기획연구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남원=정규식기자 jgs@



광양시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 준공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할 광양 공동선별장이 지난27일 광양읍에 문을 열었다. 공동선별장은 광양원에 농업이 보조 3억원, 자부담 2억2500만원 등 총 5억2500만원으로 3908㎡ 부지에 농산물공동선별장(670㎡)과 저온저장고(71㎡)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이다.

그동안 광양원에농협은 110ha에서 애호박, 매실, 쌀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해 왔으나 제대로 된 친환경농

산물 유통시설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준공으로 광양원에농협은 매실 150톤, 애호박 150톤 등 연간 300톤 친환경농산물을 다양한 소포장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인증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해 연간 8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품 전량양호 매3억 5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정포 대지 315㎡ 입아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숍 최적지(신주공/구창고매 5억9천)

농지 / 임야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매5억8천만원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매7억6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4,000㎡ 혁신도시인근 매2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갈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3억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신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매7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원
7. 나주시 다도면 풍신리 갈나무 과수원 8,664㎡, 담 2,299㎡, 목 1,260㎡, 임야 17,813㎡ 매9억원
8.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전7,610㎡ 2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1억9천만원
9.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당 매30억원
10.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11.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원
12.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광산구 지족동 2529㎡ 공시지가 2억 매도 2억 3천
- 시내 호텔 대지 923㎡, 건평 2296평, 지하 2층 지상 12층 객실 45실 등 요양병원 등 적합 (은행 24억 매도 45억)
- 광산구 월계동 APT 상가동 지하 945㎡ 시설 좋은 목욕탕 감정가 9억6백 은행동 5억 개인사업에 적합 교환가능 7억천
-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m 떨어진 독립성 별장, 전원주택지, 요양시설등 적합, 공시가 2억6천 감정 5억3천선 매도 3억6천

투자 / 매도 / 교환

- 대인시장 입구 대지 394㎡, 건평 1455㎡, 전제2억, 월700선 15억5천
- 화성군 충안면 용두리 계획관리지역 65897㎡ 전원주택 · 요양시설 공장·목장 등 다용도 매도 6억8천
- 나주시 남평 도로점 833㎡ 창고 · 식당적합 1억5백
- 순창군 북흥면 면사무소 인근 백암사, 내장사, 추월산 모두 10분 거리 전원생활 특색있는 식당 · 찻집 등 적합 대지 991㎡ 5600만원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편성 적합지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전원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평 73㎡ 9500만원
- 담양읍 APT 부지 2중 주거지 4838㎡(1463평) 은행7억 매도 15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자연녹지 1861㎡ 가든 · 별장등 적합 1억3천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편성 · 전원주택 적합 5000㎡ 평당 10만원
- 영암군 삼호읍 삼정리 730㎡ 무인텔, 원룸 등 적합 평당 160만원
- 남구 덕남동 그린벨트 입매당 89817㎡(27.69평) 건물허가449㎡(438평)
-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도로점 1884㎡ 공장 등 적합 2억 9천
- 광산구용동 평동중학교, 평동공단 부근 1중주거지 1787㎡ 빌라 · 원룸 등 적합 공시지가 4억 매도 평당 115만원(6억2천)

임대

- 지하철 금남로 4가역 접한 건물 2층 94평 (3천에300) 3층 94평 (3천에250) 4층 60평 (천에100)
- 지하철 금남로 47역 접한 건물중의 5층 367㎡ 상형외과 했던곳 병의원 임대 (6천에230) 1층 59㎡ 카페용 등 적합 (5천에13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충장로5가 광주은행과 수협 부근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북구 유동 지하1층~지상5층근린시설, 일반상업지역 대지796㎡ 건물2,704㎡ 30M도로접, 광고효과우수 공실없음, 접근성, 위치★★★★★ 감정가24억3천7백 최저가17억6백 감정가의70%
- ★동구 수기동 중심상업지역 제일오피스텔빌터럭 대지432.4㎡ 건물1,055㎡ 5층 오피스텔건물 감정가 10억7천2백 최저가 6억2십 감정가의56%
- ★북구 두암동 쌍둥이주유소부근 지하1층~지상4층 대지386㎡ 건물1,132㎡ 접근성, 가격★★★★★ 건물리모델링중, 왕복4차선도로접 코너입지 감정가10억4천9백 최저가7억3천4백 감정가의70%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2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감정가30억6천5백 최저가21억4천6백 감정가의 70%
- ★북구 중흥동 대로변점(병원, 사육직함) 상업지역 대지396㎡ 건물1,750㎡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13억7천3백 최저가 4억9천2백 접근성, 광고효과★★★★★ 감정가의 36%

※전지역 병원(부지)매매, 매입 상담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개인 병원 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급증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물건

법원경매매정정보

전국 무료사이트

투데이옥션
1899-9071
하프옥션
공정 감정대비 30%~70%

DdM 투데이옥션
NAVER 하프옥션